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洪水와 農村

一

長期旱魃의 뒤를따라 長期霖雨가 襲來한 朝鮮全島의 農村은 實로 二重의 苦難을 當하고있다. 더욱이 今年度로 말하여도 六月末日까지 旱魃이 繼續되어서 半島農作物의 大宗이되는 水稻作에 莫大한 損害를 주었고 晩播의 移秧이나마 그것이 겨우 끗이 나자 마자 連日 나리는 霖雨로 因하여 河川, 堤防의 崩壞, 浸沙, 水浸等으로 因하여 水稻作의 被害는 實로 莫大한바가 있다.

前番霖雨로 因하여 被害된 水稻作面積만 하여도 六萬八千餘町步에 達하였는데 今番에 襲來한 霖雨도 아직 集計된 數字를 알수없으나 그러나 中部朝鮮을 爲始하여 其他地方에 있어서 前番에 지지 안는 被害가 있을것을 넉넉히 推測할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霖雨로 因하여 稻作의 被害는 자못 深刻한바가 있을것이다.

二

더욱이 水稻作뿐아니라 田作物도 말할것까지라도 被害가 적지 아니할것이다 그것은 流失 浸水等 直接被害뿐만이 아니다 長期霖雨로 因하여 氣溫의 降下, 陽光의 不足, 肥料成分의 流失等은 勿論, 除草中耕其他肥培作業不能等으로 作物의 發育이 極히 不良하다 게다가 蔬菜類와 및 果樹에 주는 影響도 頗히 좃치 못하다 따라서 直接的으로보던 間接으로보던 今番의 霖雨는 朝鮮農村에 주는 經濟的損害가 實로 莫大한것이 있다 이 어찌 仰天嘆息할 일이 아니랴 그러나 한갓 怨天尤人을 할것이 아니라 이와가튼 境遇에 際하여서는 언제든지 그對策을 講究하여서 可能한 限度에서 被害의 程度를 輕減하고 또는 一步를 나가서 災害를 克服하여갈 決心을 굿게하고 方法을 講究치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三

아직 本論을 抄하는 瞬間까지도 霖雨는 繼續降下하는中이므로 農村의 被害程度가 얼마나 더 深刻하여질것인지 매우걱정이된다. 元來 半島農村은 그 負荷한바 食糧基地의 使命을 達成하기爲하여 人爲的努力을 强化하여가지고 今年度부터 實施되는 産米增殖의 計畫가튼것도 計劃대로 十全의 成果를 어더야만 할터인데 이와가튼 雨不順風不調의 天災로 도리어 큰 被害를 입는것은 可謂天道無心이다. 그러나 要는 各當業者는 勿論, 爲政當局으로서도 被害程度를 最少限度로 減少케하고 또 被害된 境遇에는 그것을 克服하여서 目的한바의 食糧産出에 큰 支障이 업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므로 雨後의 作物管理, 被害地의 復舊作業을 極力으로 奬勵實行케하고 當局에서는 可能한 一切手段을 다하야 援助치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具體的으로 一例를 들면 決潰된 堤防의 復舊를 卽時施行케하고 此에 必要한 人的物的의 資料를 使用하는데에 가진便宜와 援助를 주어서 被害地에서 農作物收穫이 얼마라도 생기도록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元來當局에서는 今年度에도 旱害의 對策으로는 代播種子의 配給, 地下水利用方法等을 考慮하고 있는反面에 洪水의 被害에 對하여서는 周密치 못하였던것가트나 그러나 只今도 느찌 아니한즉 하로바삐 最善의 對策을 樹立實行하여서 食糧政策에 遺憾이 업고 農村生活의 安定을 圖하여야할것이다.

第二次近衛內閣成立

閣員名簿를捧呈 廿二日親任式擧行

【東京電話同盟】組閣을完了한 近衛文麿公은 二十二日午後七時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고 삼가大命拜受의旨를 奏上, 閣員名簿를恭遞하게捧呈, 陛下께옵서는 이를嘉納하옵시고 同日親任式을 執行하옵실旨 吩咐가게옵섯다 그래서 近衛首相以下各閣僚(河田新藏相을除)는一齊히參內,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後八時松平式部長官의 御先行으로 鳳凰間에出御, 留任閣僚인 吉田海相侍立下에 執行하옵시어 近衛公에對하사 內閣總理大臣과 農林大臣의 親任勅語를賜하옵시고 首相親任式을 마치옵시고 官記를授與하엿다 이리하여 陛下께옵서는 一旦入御하옵시고 同九時再次鳳凰間에 出御, 近衛新首相侍立 各閣僚의親任式을擧行 玆에 第二次近衛內閣은 成立되엇다

從二位勳一等公爵 近衛文麿
任內閣總理大臣兼農林大臣

從四位勳一等 松岡洋右
任外務大臣兼拓務大臣

正三位勳二等 安井英二
任內務大臣兼厚生大臣

正四位勳二等 河田烈
任大藏大臣

陸軍中將正四位勳二等 東條英機
任陸軍大臣

正五位勳三等 風見章
任司法大臣

第一高等學校長兼東京帝國大學敎授 從四位勳三等 橋田邦彦
任文部大臣

小林一三
任商工大臣

村田省藏
任遞信大臣兼鐵道大臣

留任閣僚海軍大臣 吉田善吾

從四位勳三等 星野直樹
任企畫院總裁
內閣官制 第十條에 依하여 特히 國務大臣으로서 內閣員에列함

肇國精神發揚에邁進 (近衛新首相談)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二十二日初閣議散會後 左와如한談話를發表하엿다

나는 偶然다시 大命을拜하여 非才로서 實로恐懼에不勝하온바 粉骨碎身全力을 다하여서 輔弼의重責을 다하여 聖慮에 奉副할생각이다 이제부터 國의 新秩序를 建設하고 未曾有의 轉換을 推進하고저 나는 一億國民과함께 一意肇國精神의 發揚에 邁進할생각이다 國民諸君은 衷心으로 協力해주기를 切望하는바이다

米內、有田兩氏 前官禮遇下賜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思召에서는 米內前首相과 有田前外相에對하사 二十二日 特히 前官禮遇를 賜하옵신旨 御沙汰가게시옵섯다

正二位勳一等功四級 米內光政
正三位勳一等 有田八郞
特히 前官禮遇를賜함 (各通)

國防國家建設 親任式後 新陸相談發表

【東京電話同盟】陸軍은 新內閣 親任式終了後 左와如한 新陸相談을 發表하엿다

至今未曾有의 難局에際會하여 이에對處하에는 國內로는 組織을 整備하여 政治體制를 完璧케할것이고 支那事變의合理的 且有效한處理와 相俟하여 對外施策을 轉回하는것이 急務이다 이때문에 擧國一體 國家의總力을 發揮하여 國防國家建設의本旨에基하여 國防國家를 建設하지안흐면 안될것으로 確信한다

後任航空總監 山下奉文中將

【東京電話同盟】東條中將의陸相 就任에伴한 後任航空總監兼航空本部長에는 山下奉文中將이 親補되고 또 畑前陸相은 軍事參議官에親補되어 二十二日午後十時 近衛內閣의親任式에 이어 畑大將의親補式이擧行되엇다 山下中將에對하여는 職記가傳達되엇다

陸軍中將 山下奉文
陸軍大將 畑俊六

聲明은今日發表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親任式終了後 首相官邸에서 初閣議를열어 各閣僚의 初會合을한 後新體制發表에對하여 別項과가튼談話를發表하엿다 그리고 聲明과 新內閣의 第一聲은 廿三日 이를發表하기로되엇다

新翰長略歷

【東京電話同盟】新翰長에 決定된 富田健治氏는 京都府出身으로 年四十四歲, 大正十年 京大法科卒業後 內務省에 들어가 … 昭和九年 大阪府警察部長이 되엇다가 現在에 이른다

村田新遞相談

【東京電話同盟】遞相兼鐵相就任을承諾한 村田省藏氏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大阪商船支社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모든것은就任한後 次官局長等과 잘相議하여서 하여가련다

石黑氏空路歸京

【新京電話同盟】農相就任의 交涉을받고 歸京途中인 石黑氏는 二十三日朝下關着 空路로 歸京하기로되어 … (寫眞은 石黑氏)

日支交涉順調進行 近近圓滿히妥結 目下技術的問題審議

【南京二十二日發同盟】日支國交調整에關한 第六回 日支會議는 二十二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國府會議室에서 開催, 前回會議에對하여 … 基本事項과 附屬하는 事項의 條約案文을 審議하엿다

【南京二十二日發同盟】二十二日 日支國交調整에關한 第六回會議는 字句의修正, 案文의整理等 主로 技術的問題에 關하여 審議하엿는데 審議는 順調한 進捗을 보이고 잇스므로 近近圓滿妥結에 이를것으로보인다 第六日의 會議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十五分開催, 前日에이어서 案文을 審議하고 午後一時十五分 散會하엿다

獨總統演說에應酬 英首相和平條件을提示乎

【經育二十一日發同盟】二十一日 經濟에達한 UP倫敦電에 依하면 처칠首相은 히틀러의 國會演說에應酬하여 二十三日下院에서 英國側의 和平條件을 闡明하기로되엇다고 하며 그러나 UP電에 依하면 처칠首相이 闡明하려는 和平條件의 骨子는

一、獨逸에依하여 征服된諸國의 自由回復
一、獨逸이將來侵略行爲에 나오지안흘保障
一、英帝國의安全確保에 對한保障

等으로 이는明白히 …

히總統演說 反駁乎 英外相放送

【倫敦二十一日發同盟】히總統의 國會演說에 對하여 英政府가 … 할리팍스外相이 二十二日午後九時十五分부터 라디오를 通하여 히總統演說에 答할것이라고 보고잇다

外交消息通은 할리팍스外相은 … 拒絶하여 英國의 立場을世界에 闡明할것이라고 보고잇다

發展的解消 聖戰議員聯盟協議

【東京電話同盟】聖戰貫徹議員聯盟에서는 二十二日午後本部에서 常任幹部會를열고 近衛內閣의成立에依하여 急速히 促進될新政治體制確立에對한 態度에關하여 여러가지로協議한結果 政友中島派及國同의 同調를기다리고 또民政黨의 無條件으로 新政治體制에 參加할것을 期待하여 … 協議하엿다

市況 (廿二日)

◆東京株式◆ … ◆實物後場◆ …

人事·集會

◆岸本海人氏(朝鮮總督府事務官) 新任人事次二十二日來社

古莊邸에勅使御差遣

【東京電話同盟】畏하옵게도 陸軍大將古莊幹郞氏重患에 對하사 二十二日午前十時 勅使를 古莊邸에 差遣하사 … 하옵시엇다

賃金臨時措置 調査委員會規程

【東京電話同盟】… 七月二十二日 … 賃金臨時措置 調査委員會規程 …

風見新法相談

【東京電話同盟】… 風見新法相은 二十一日午後十時四十五分 … 左와如히 말하엿다 …

結城日銀總裁談

【東京電話同盟】結城日銀總裁는 第二次近衛內閣成立에 對하여 … 談話를 發表하엿다 …

翰長、法制局長官 富田、村瀨兩氏發令

【東京電話同盟】政府는廿二日初閣議에서 書記官長에 長野縣知事富田健治氏를 法制局長官에 前商工次官村瀨直養氏를 正式決定 同日左와如히發令하엿다

正五位勳二等 富田健治
任內閣書記官長
從三位勳一等 村瀨直養
任法制局長官

星野總務長官 解官手續終了

【新京二十一日發同盟】… 星野總務長官 … 解官手續을 終了하엿다 …

東條新陸相 今朝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東條新陸相은 二十三日午前七時半 … 事務引繼를 行하기로 되엇다

滿洲總務長官 後任武部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星野滿洲國總務長官의 後任은 … 武部氏로 決定되엇다 …

小林等三氏와 近衛公會見

【東京電話同盟】近衛新首相은 二十二日午後五時十五分 荻窪私邸에 小林一三氏, 富田健治氏, 村瀨直養氏와 會見하엿다 …

岡田英太郎氏 商船社長에內定

【大阪電話同盟】大阪商船에서는 村田社長의 遞相就任에 伴하여 … 岡田英太郎氏의 昇格이 內定되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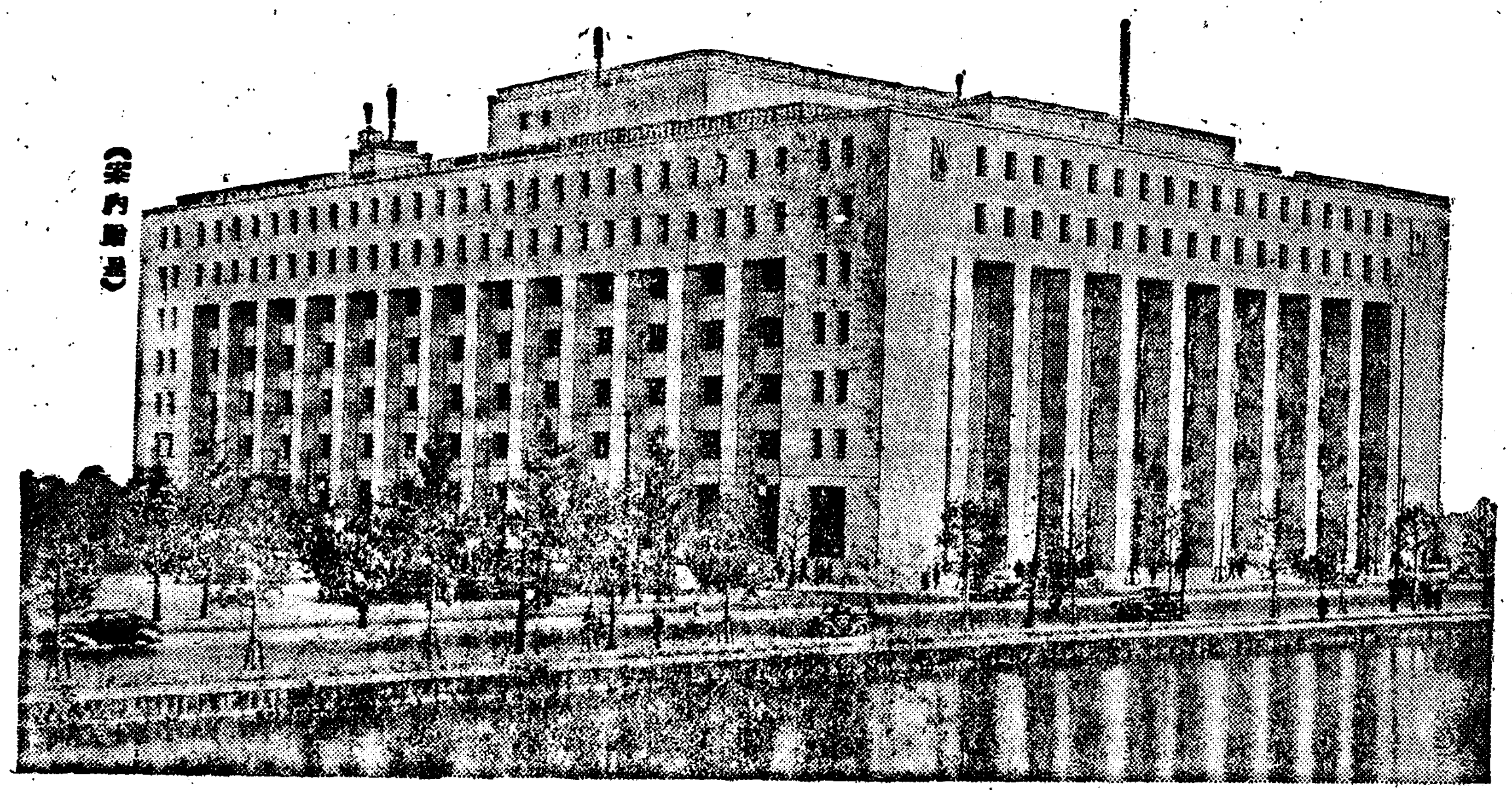
村瀨氏略歷

【東京電話同盟】新任法制局長官 村瀨直養氏는 … 大正三年東大法科卒業 … 商工次官 …

國同은廿六日解黨

【東京電話同盟】國民同盟은 … 二十六日 解黨하기로 되엇다 …

「國民의進路明示」 「軍政合作」 「日滿支經濟의綜合的調整」 「國民生活의安定確保」 「政策의重點主義徹底」


(案內寫眞)

確實·低廉·親切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東京·日比谷 電話丸ノ內(二三) 代表五一〇一一番 代表五一二一一番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의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藥院

丹頂 歯ブラシ
3倍の耐久力
歯의內側을淸潔케닥는데는丹頂의中高植毛가第一입니다!

よい職業 前途益々有望
日本割箸工業所

大宗인農家는激減 工業鑛業戶數躍進

事變影響이至大한原因?

總督府文書課調査

총독부에서 작년말현재로조선 안에 [illegible] 이것을 다시 조선인, 내지인, 기타외국인은 [illegible]

農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業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交通業	[illegible]	[illegible]
公務自由業	[illegible]	[illegible]
其他有業	[illegible]	[illegible]
無業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延吉街道路改修費

約五萬圓補助

[illegible]

漢江減水中

廿二日午後九時現在 旭川九·〇八米

그러께 [illegible] 旭川 九·〇八 人道橋 八·〇五

司諫町담崩壞

[illegible]

燒酒暴利摘發

[illegible]

白川紅峴間

黃海線不通

[illegible]

"벼치쟁쟁나주소서"

豪雨로農林局에서農形을憂慮

[illegible]

追放된猶太人群

十五日以來每日數十名式釜山通過內地에

大概는米洲로向發

[illegible]

清凉、祭基兩町

住民安堵

이십이일 오전 [illegible]

各縣事務長會議

[illegible]

술로暴利綻露

[illegible]

運動靴配給

三府는二學期初開始

[illegible]

警防團에千圓

東銀寬勳町支店

[illegible]

平壤第一中學生

豐田서勤務作業

[illegible]

匕首그린怪脅迫狀

崇仁町某會社員家에怪漢이兩次나出現

男便의身邊云云하며夫人에게金品强要

[illegible]

團體 車輦館、京電

個人 嚴、許兩人優勝!

昨日 都市對抗씨름大會閉幕

[illegible]

◇一般원저룸團體戰 [illegible]

◇一般바룬저룸團體戰 [illegible]

◇中等部團體戰 [illegible]

◇一般選拔원저룸部 [illegible]

◇一般選拔 바룬저룸部 [illegible]

◇一般룽저룸自由戰 [illegible]

◇中等部選拔戰 [illegible]

全羅蹴水上競技에 普專水泳部도出戰

[illegible]

一萬競步世界記錄 濠洲陸上界의躍進

[illegible]

神宮大會參加選手 鐵道割引不變更

[illegible]

알스토룸 KO 對디킨스拳鬪戰

[illegible]

디마지오君에榮冠 全米最優秀選手

[illegible]

自轉車前期五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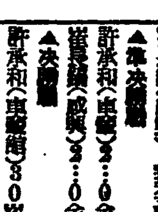
[illegible]

◇千米 [illegible]

◇五千米 [illegible]

◇一萬米 [illegible]

七月二十三日(火曜日)陰六月十九日 ▲干支丁卯 ▲日出午前五時二〇分 ▲日南中午後〇時四〇分 ▲日入午後七時五〇分 ▲晝間一四時二〇分 ▲月出午後九時五〇分 ▲月入午前九時一分 ▲滿潮前七時四五分 後七時五五分



딱총 [illegible]

曇時時晴

廣告

一家の 食慾 을旺盛케 便通 을正確케 榮養 을豐富케

酵母劑로 다優秀한 피루쓰劑 ホシ ミクローゼ 日本固有の有効成分配合 一ヶ月分 一圓五〇錢

星製藥株式會社

本日發賣! すぐお求め下さい

婦人公論 八月「若き世代の倫理」号 定價六〇錢 東京都麴町丸ビル 振替東京三四番 中央公論社發行

幸福な家族·武者小路實篤
人間の復活·島木健作
人 族·阿部知二
十 年 間·林芙美子
美しき秩序·芹澤光治良
子供一人·川端康成

母性に還りて·平塚らいてう

フランス崩壞するの日(女性國際知識) 清澤洌
イタリーの印象(旅雁日記) 野上彌生子
砂糖節約の手輕な季節料理 中曾根 梅子

□街の第五部隊…辰野九紫 □階段…德川夢聲
僕の新作戰 □我等のスキート·ホーム □胎教新作戰 □訪問被害撃滅 □隣組新戰術

座談会出席者 堀切善次郎·小松東三郎 原祐三·奥むめお

家庭經濟の再編成
☆物價高·物資不足の家計を如何に切り廻はすか

リーフェンシュタール物語·筈見恒夫

わが生ひ立ちの記 宮城タマヨ 加藤セチ 眞杉靜枝

主婦代りの生活…土田桃子
この現實の生活…藤木町子

戰時生活報告書(家庭婦人は如何に戰ひつゝあるか)

落雷と電氣の話 石原純

今昔物語 小島政二郎

詩人ショパン 野村胡堂

女の秘密 式場隆三郎

きやうだい…木下孝則·石井柏亭·鶴三·長與善郎·武者小路公共·實篤

季節隨筆 京都の夏·郭公のおとづれ·中谷宇吉郎 夏の京城·安倍能成 からし火と櫨青葉·秋山六郎兵衛 夏の風土·結城哀草果

若き世代の倫理

大學生 武田麟太郎
若い娘の倫理 宮本百合子

不良少年少女の問題 高峰博
優生結婚相談の実際 安井洋

☆哲學研究の爲めに…桑木嚴翼

村童抄 住井すゑ子

□湘南だより…山川菊榮 □夏日…幸田露伴·安井曾太郎 □志賀直哉·山本有三 □王に生きる人々 □夏のヘルビン…寺崎浩 □海國少女 □子供天國 …奥田準一

☆文學の研究を志す若き女性の爲めに…中野好夫

無 緣 佛 豐田正子

はねつるべ 幸田露伴
蟲と鳥·志賀直哉
アナベル·リイ·日夏耿之介

新について(新婚考察) 河上徹太郎
肉體と精神(私は思ふ) 谷川徹三

犧牲的結婚(わが母の記) 石川達三

中部版

浸水家屋이 二百戶

各處의 道路決潰로 交通杜絶

水禍仁川府에 再襲!

【仁川】 한달이나 장마가 계속하여 모두가 비그치기를 고대하고잇스나 지난이십일부터 여전히 비는계속하여 이십이일까지도 기차가 나리어 각처에 예수해가속출하는데 ...

金浦一帶泥海化

警察、水防團出動警戒

【金浦】 연일계속하는 호우는 필경 금포일대에는 사면이 물바다를 이루어 지난이십일부터는 ...

세번째의 물난리

【金浦】 지난십구일부터 계속하여 쏟아지는 호우로 말미암아 김포일대에는 ...

木炭飢饉

【仁川】 인천부내에는 요즘얼마 동안 목탄(木炭)의 기근이 심하여 ...

賞탄돈으로 獻金

【新義】 ...

感想發表

뜻외奉仕의

【金浦】 ...

仁川府民에 警告

赤痢患者續出原因은

配付한藥안먹는데서

【仁川】 인천서에서는 장마뒤에 만히발생하는 적리(赤痢)가 유행하므로 ...

防共木浦支部

辯論大會

【木浦】 조선방공협회 목포지부 주최의 제일회변론대회는 ...

南北棉業

長湍工場上棟式

【長湍】 ...

十三萬斤生產豫想

白蔘手數料만萬餘圓

開城人蔘販賣組合總會開催

【開城】 ...

半年間交通事故로 非命橫死五名

【仁川】 ...

職員等動搖

國勢調查事務協議

暴雨무릅쓰고

千餘觀衆이殺到

미도리會盛况裡終幕

【仁川】 ...

水泳講習會

【木浦】 ...

大川長項間에 또自動車不通

【舒川】 ...

待望의城津府制

明年十月一日부터實施決定

吉州郡東海面全編入·總面積九方里

【城津】 ...

濟州見學團募集

木浦觀光協會서

【木浦】 ...

怪奇窃盜事件

【洪川】 ...

節米運動에拍車

江原酒造業者들休業

【春川】 강원도내의 주조(酒造)업자들은 ...

"女校마천색씨들도 장기질을잘하여"

全北農業報國團의內地所感談

【全州】 ...

生業報國講習會

竹細工을獎勵

江原道地方에

金浦郡教育會 總會延期

【金浦】 ...

長霖繼續으로 田穀大量減收

三廣學校學父兄會

惠山地方에도 農作大豐豫想

【惠山】 ...

邑民四千戶에서

邑稅十倍式捻出

筏橋商業學校設立資金으로

【筏橋】 ...

라디오體操

全州五個所서實施

【全北】 ...

全義에洪水

【全義】 ...

平南道國勢調查

擔當者協議會開催

今月下旬부터各郡別로

【平南】 ...

秋本校長謝恩會

【元山】 ...

기름끼 많은얼굴 으로나스고 도근본적 빠지는 어여 화장수

훌융한「아스토린젠」의미용작용

언제 그런가?

분화장이 잘되지 않으며 ... 「明色アストリンゼン」을 ...

무세방울로써 화장도잘되고 오래가게되며 자기만이가진 어여쁨도 뚜렷하게 됩니다!

분단장하시기전에 アストリンゼン을 쓰시는것은 신녀성의 세계적상식!

▲기름진얼굴이낫게됨

定價 一瓶 五十參錢

製造元 桃谷順天館 東京·大阪

明色アストリンゼン

明色아스트리도젠(최신식화장수)

複合粒子로임 극히아름답게 잘먹는가루분

三重作用을가진 最高級의가루분!

(一) 複合粒子임으로지극히아름답게 잘먹게됨

明色粉白粉(가루분)은 매우細微한白粉의粒子로써 더욱히 物理的化學的의 선연구를거듭하야 複合粒子라는 독특한微妙精巧한상태로써 化成되어잇는까닭에 보통의가루분과는 비교가안될만큼 어여뿌게퍼지고잘먹게됩니다

(二) 시간이지날수록 더욱 어여뻐저 중가됩니다

(三) 美容粒子의작용!

明色粉白粉에는 독특한 美容粒子가 가장 과학적으로 精巧히 配合되어잇는까닭에 ...

新의 標準七色

膚色	膚色
サンビーム(膚色二號)	
ラフレエル(膚色主號)	
白色 (ホワイト)	
オークル一號	クリーム
オークル二號	オークル
黃味色	アンバー

최고의가루분이보통값의도매값

明色粉白粉

메이시요구고나오시로이

淋病

急性 慢性

從來の治淋法を一蹴し 內服による淋病絕滅

淋病만은藥法의藥으로는 免疫으로効果가적다, 리ンダリン錠은 獨逸서發見한 金酸아미도의 化學療法劑로서 그리케強한 淋病의牙城도 最新하여 迅速的效果...

(特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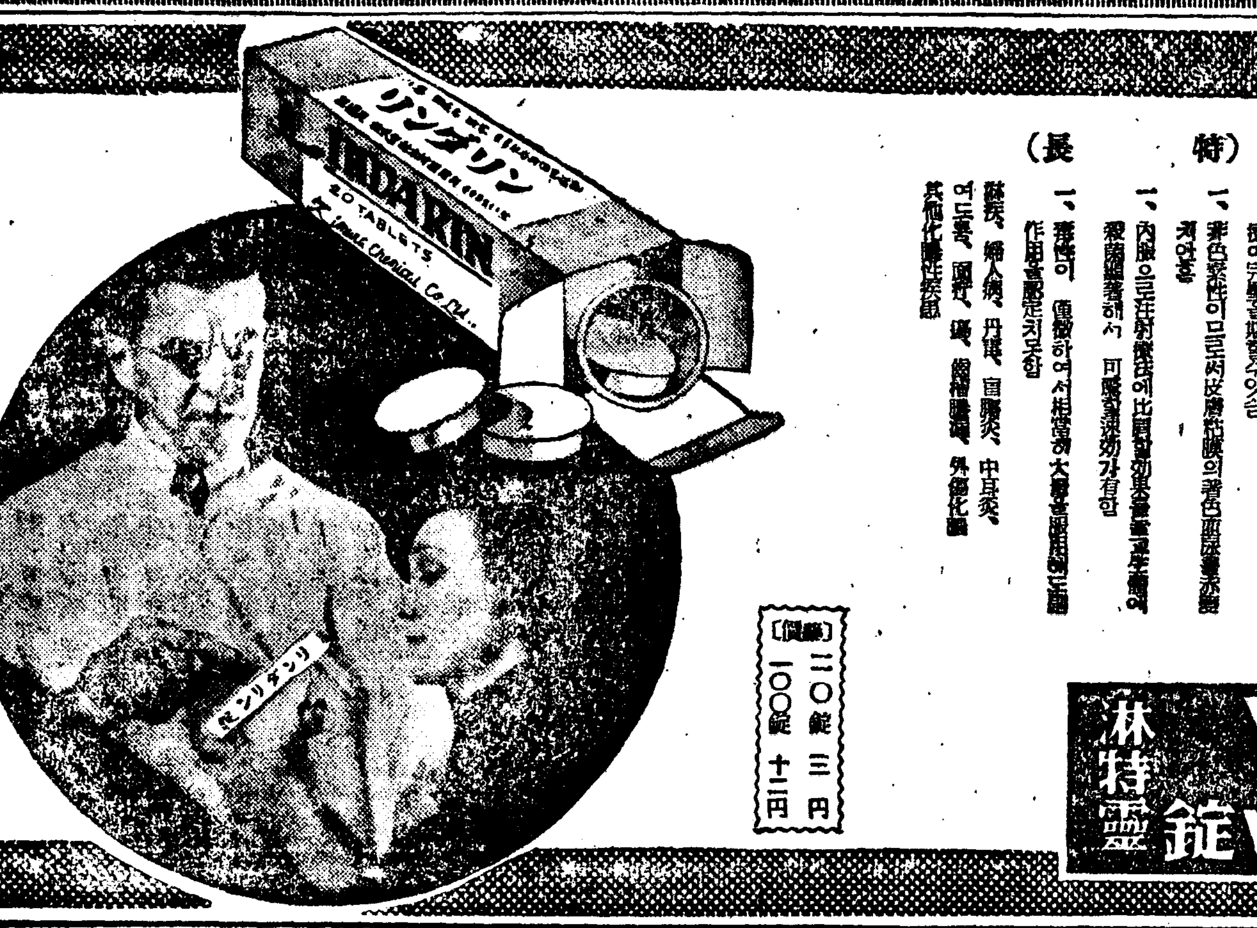
一、單一金酸아미드와二系連結金酸아미드의合劑이 ...

一、...

一、內服으로ホ射療法에比하야 ...

一、...

淋疾、婦人病、丹毒、盲腸炎、中耳炎、其他化膿性疾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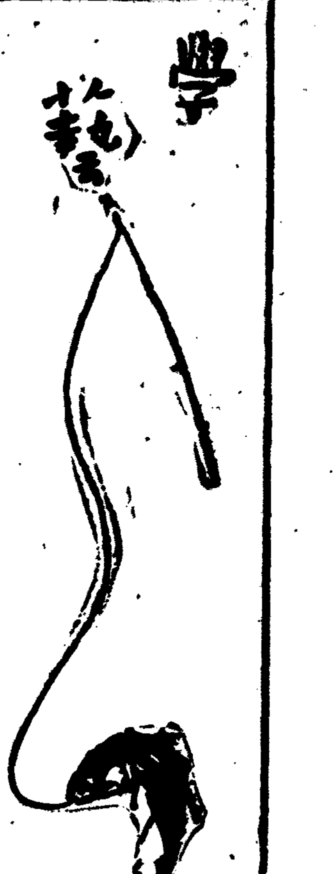
【價格】 二〇錠 三円 一〇〇錠 十二円

アース殺虫劑本舖 アースタムム本舖 株式會社木村製藥所

淋特靈錠 リンダリン

노ー벨賞을獲得한淋病撲滅의驚異的特効藥으로서世界의醫學界에一大變動을捲起한特効藥이다!

R 100



。文。化。時。評。 ① 歷史와 個人 (上)

尹圭涉

오늘의 歷史的轉換期에있어서뿐만아니라 어떠한 歷史的過渡期를 勿論하고 個人의位置라던가 그意義를 찾는다는것은 그時代에있어서의 必須的인課題임에 不拘하고 이제까지 이方面의 論究가 (閑却)된 狀態그대로있다는것은 어이된일일까.

한동안 우리들은 個人에對한 社會의 意識을 强調하고 그의 規定的인 힘을 個人에게 導入說得하므로 말미암아 個人이라던가 個性을 너무나 度外視하엿다는 非難을 들을적이 잇다. 卽「지내간 社會科學的理論은『客觀』의 論理的過程에 對하여는 어느程度까지 說明하는바가 잇다고할수잇스나『主體』나『行爲』의『理論的過程』에 對하여는 全然說明이 缺如되어잇다. 거기에는個人이 無視되어잇슬뿐만아니라 主體에關한 기픈 洞察이 업다. 個性은 單也 社會的影響가우데 分散되고 解消될따름이다. 그러나 實際에있어서 個人은 偉大한 存在하며 (個性)은 사람마다에 잇서서 獨特한 意味를 띠고 잇지 안는가」하는 非難과 攻擊이 되푸리되어온것이다. 事實 이가튼 個性論議는 主張에잇서서도 相當지거 主張되고잇다. 〃뮤타·푸리이엔스〃라던가〃아스펙스〃에 依하면 個人의 本質이란 內部的生命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外部에서는 그에關하여 그림자(影)를 던질수잇스나 그의 自發性을 犯할수는 업는것이며 그가튼 內奧의絶對性으로全[illegible]

[illegible]

(文壇) 形成하고 잇는것은 個性과 生命의 [illegible] 이다. 勿論 [illegible] 金氏의論理[illegible] 世代, 또는 [illegible] 따르는 새로운 文學的 世代 [illegible] 文學에서 찾고잇다 [illegible] 現象임에 틀림업다.

(社會) 다던가 個人의 本[illegible] 的으로 [illegible] 歷史的[illegible] 火의 事實이다. 그러나 오늘의 歷史的情況에잇서서 우리의 注目을 끌고잇는것은 그 어느一方的인 主張보다도 오히려 이제까지 [illegible]

(民族) 社會의 內部에잇서서도 個個人의 사이에는 [illegible] 한 相[illegible]가 잇서 그 [illegible]의 指[illegible] 와 [illegible] 그 民族內의 가[illegible] 한 人物에 依하여 保[illegible]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illegible] 個人의 特殊性이란 [illegible] 되는것이 아니나 大多數의 個人이란『[illegible]大衆』으로서 [illegible]

(現實) 은 주어진그대로[illegible] 게 어찌할수업다는 것이 一般的[illegible] 民族的이存在方式이라고한다. 여기에잇서서『全體』와 個人은 아무런 [illegible] 可能性을보여주고이다.

[illegible]

。七。月。의。詩。壇。 (4) 巴人과 白石

金岸曙

文章雜誌七月號에 나타난巴人의 抒情詩抄외다. 이즈음이新聞雜誌에 이러한題目으로 發表되엿다하면 그것은 말이아니기때문이외다. 巴人의 特色이라 할는 巴人의短詩들을 가끔보거니와 巴人의詩風이 民謠도 기우지 모르거니와 이詩人의 文章이라던가 用語는 너무도 거츨려지는것을 나는대단이 기뻐할뿐아니라 또한注目하고 期待하어 野性으로의 淳朴이잇슬뿐이 더배외다. 이들民謠風의 것에는 외다. 그러나 그러타고 이野性자미잇는것이 업지아니하나 大으로의 淳朴그것이 詩가되고 더 만치 齒調도보아서 巴人의民謠가 眞正한 意味로의 民謠가되기에는 아직用語에 相當한距離가 잇는상 하는 想은 前日의것보다는 取할點이 잇습니다. 웨그런고하니 만일民謠에서 그用語가 그것답지못하게 된다하면 그것은 말이아니기때 문이외다.

如何間 巴人이 이즈음와서엇정 (?) 이 외다. 그러고 한 사람이 [illegible] 아직 用語의洗練을 거듭지안허서는 아니된다는感이 적지아니 하외다. 技巧라하면 世上에서는 몹쓸것이나 얼굴에다 粉칠이나 반드르하게하는것으로 아는모양이나 그것은 決코 그런것이아니외다. 잇는그대로의 얼굴에다가 알맛게 粉을 발라노흐면 그만치그 얼굴이 보다더 아름다워보이니 이러한것을 보더라도 技巧는어 디까지 必要하외다. 그러고 한 거름을 더들어가서 想과 表現은 떠날수업는것이라하면 技巧를 나는表現이라 보고저하는것 만치 詩想과 技巧는 또한떠나서는 잇슬수업는것이라합니다.

이와가튼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나는 詩歌的活動을 꾸준히함에 對하여 나는 이詩人의 明日에 크다란期待를 가집니다. 대단이 기쁜일이외다. 韓赦(?)할일이외다. 「내高한줄 불은(?)엇건만 들 엔길래 저절도 피고 내물한망울 맥인지 엿건만 하늘엔 종달새 슬거이운다. 그래도 이러한 제힘으로 다 크서서 내겨레 와주시니 내 하늘에 절하올가, 그대모에갈 사드리올가 아아 슬거운世上이다!」 아아 이와가튼短詩에서 우리는 이詩人의 詩的心情은 엿볼수는잇스나마 그表現이 너무도 몽롱하외다. 더구나이와가튼것은 極히 적은일이라 할망정『부모에』니『八月三』이 너무도 音調美를 가지지못 게』할것을『부모』다. 아모리 自由詩일망정 詩形모지 그러케 對할수가 업습니다 對지안허서는 아니될것이언만 도 詩歌를 좀더 興味와 同情으로 이 누구보다도 나는 이詩人의 외다. 무슨에누리할것도 업는말 그다음은白石君의『北方에서』 외다.

어와가튼것은 如何間 詩壇을 위하여 기쁜消息의 대단한하나 슬 압니다.

伏」이니한것 그것이거니와 어하여 엄기에 如干한 거북하지 것은 아마 [illegible]일것이외다. 아 아니하외다. 그러고 바로말하자 모리 할수잇는대로 [illegible]의 면 白君의詩도 알기어려운것의 시킬수잇는 詩라고 하더, 라도 하나로서 만일이詩에서 어[illegible]서 그 [illegible]가 分明치안케까지, 하여 어 엿라하면 그러타는 느낌이 [illegible]서는 첫째에 알아볼수가업고둘 요 直接으로 마음을 울려주는 째에 音調가 흘르지못하는것인 깁고기픈 感動은 이니외다.

가고업다!

고이詩人은 웨처다[illegible]하엿거니 와 아모리自由로운 그야말로 [illegible]이란 한分어치 업는詩形이라 [illegible]할망정 이러케도『은,는』옳거 [illegible]하여 主格만은 부처노하서야 結局散文과 무슨다른點이 잇는지 도모지 알수가업습니다. 이것을 立體的이라고한다면 物件이란 物 이 [illegible]할것이라하면 그 詩歌의 鑑賞을 히미하나마 려다는[illegible]에만 求할것이라하면 그러치아니하고좀 그만이 어니와 그러치 아니하다면 탓이기때문에 더무엇을 論議키 더들어가서 보다더分明한무엇까 어려거니와 그러치 아 지 求하는讀者가 잇다하면 그 좀더생각할 餘地가 잇슬것이외 는것을할것이외다. 이北方에서의 다. 나는무엇보다도 詩에서는 音 마즈막節에 을 [illegible]합니다. 詩에從事하는 『아, 나의조상은 형제는 일가 사람으로서想이 업슬理는 업는 친척은 정다운이웃을 그리운 일이외다. 그러타면그것을어떠케 것은사랑하는것은 우러르는것 音調조케表現해노흘수가 잇슬가 은 나의자랑은나의힘은업다, 는 詩作上 어려운問題의 하나 바람과물과 세월과가치 지내 일것이외다.

。八。等。雜。文。 (三)

吳章煥

한가한 다리 江 갓가며 허녀 어인 歲月

白鷺야

도 흘르에 보내……

바람에 [illegible] 무리 허둥 風水에 잠잔히흐러 가는 너 슬픔이어!

어 [illegible]야 ! 東洋畵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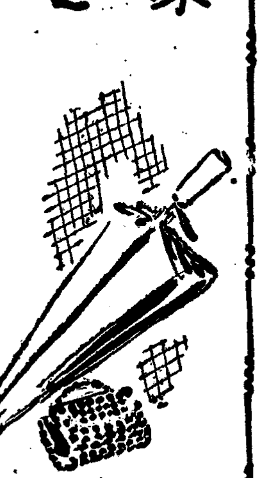
이것이 내 詩「白鷺」의한 節이다.

石 어름이 진 [illegible]장의유 리창을열면 그속에서 비상이다. [illegible]이다. 沃度다. 水[illegible]을 헤어 [illegible]다. 〃아다린〃이다. 우[illegible] 두무 나오는 [illegible]을, 主人이 잘는[illegible]을 라서는 모—든 이런[illegible]이 미다지 를 열고나와 책상우에 제 멋대로 [illegible]고 [illegible]이며 너는 어찌, 沈[illegible]히도 水[illegible]을 치고 잇느냐. 내게 업는것 대체 나는이 것을 가저야 하느냐 旣은 가지안허도 조흐냐! 精神上의 兄弟여! 肉身上의 同業가아니라 精神上의 兄弟여! 모조리 내아페와서 集合을 하라. 요마적은 서울잇슬때에나 東京가 잇슬때에도〃마르도ㅣ〃의 作品을 [illegible]그리 읽엇도니 그[illegible]에게서 만[illegible]兄弟를 어덧다. 〃메르쾅〃〃크라보ㅣ〃〃가린〃。〃기요〃。〃기요〃보다는 [illegible]한〃헤로〃陳 이런것들이 나를에워싼다〃메르캉!〃〃메르캉〃! (차라리 時나그것도〃랭보ㅣ〃나〃보ㅣ도렐〃이아니고 十九世紀佛蘭西 浪漫派의詩나읽엇든들 순진한 感傷이 나 간직햇슬걸.) 내가갓지 안흔것 갓고시퍼 하는것 [illegible] 이야기를 [illegible]이 잇고 [illegible] 아무리 서러운 눈물도고요히 거두어질때는 다시온느니…… 〃하이네〃氏가 노래하신대로 얼마동안한그저 얼마ㅅ동안만기다리면 지난날의[illegible]와가치이런것도 언제 그러엿이 잇섯는가 하리라.

[illegible] 을 읽어 왓노라. 나는〃말라르메〃〃先師의 詩[illegible]에 이런句節이잇는것으로 [illegible]하고, [illegible]마음에 다시 책장문을 연다.

장속에는 문지가 보ㅣ야케 안젓다. 얼마동안을 두고 이러케 군색한것이지, 처음에는 그래도 이속의[illegible]이 어린애를 니(齒)갈듯 때저다는 다시나고 다시나고 하든것이 이제는 아래웃턱 아주 형용할수도 업다. 이속에서 나는 어떠한[illegible] 것을 어떠한 [illegible]을 求하려 함이 업슬가. 自身에對한 不信任과 詩에서 大[illegible]과 日常의不安에서 오는 [illegible]外에 [illegible] 外에 무엇을 어든것일가. 차라리 [illegible]아 가리라. 〃아프리카〃砂漠으로 [illegible] 울실고가든 〃랭보ㅣ〃는 [illegible] 그〃베를레느〃에게 총

[illegible]



家庭 위험타 고막기만하면 겁쟁이가되기쉬워

어린애들보고『위험하니 하면 안된다……』이러케 대단찬혼일에도 벌벌삼아 말하는 어른들이잇습니다. 부모된이로서는 자식의신변에 늘주의를하고 잘못되면 어쩔가…… 이러케 늘걱정하는것은

★…… 한번그것은 물론입니 **당연** 다마는 이것도 정도 ★……문제이고 너무지나치면 도리어 폐단을 일으킬염려가만습니다.

가령 자전거를 사줘다고합시다. 어머니는 어린애가 이걸타는것을보면

★……『흥기 적이업슬겐니다 **위태** 그러니 자연 막게됨 ★……니다.

『저것봐 또 넘어지네! 상할라 고만둬! 고만두라니까! 아이참 압빠는 뭘하느라고 저런걸 애한테 사준담……』

이러케 말소리고 걱정하는말이 한두번이 아닐것입니다. 또 요새 가태서는 어린애들은 며감으려

★…… 가고지퍼 합니다. 그 **들에** 러면 또 어머니되는 ★…… 되는이는 걱정입니다

『안돼. 전년에도 동네집애가 며감다가 빠저 죽엇는데 어쩔라구. 몰도간다. 가면안된다 수영을 못배운다고 그만둘것이면다……』

★…… 이러케들 말하기가쉽 **대개** 습니다.

★…… 이것은 참으로부모된 애정으로도 자식이위험한데 가까히 하는것을 되도록 막으려는 거룩한 맘에서하는 일일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정도문제입니다. 너무지내치면 어떤결과를가저올을아십니까.

★…… 섬이 겁한어린이라면 **모험** 하는수업시 부모들보 ★…… 눈을 속여가면서 자[illegible]

또 적절한 어린이라면 어떠케될까요. 부모가저러케지말라는것을보니 자전거나며감은 일은세상에서 절대로 배워서 는못쓸 나쁜일인줄 알게될것이 아닙니까. 그러케되면 이것이 며지고자치가면 자전거나

★……은 고사하고 만사에 **수영** 무섭만하는 아이가되 ★…… 기가 업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야기퍼 생각해야될일일 것입니다.

그 면 어떠케하면 조흘까요. 그것은 이럿습니다. 가령 자전거라면 먼저 부모자신이 연신이 그리면서도 세심한

★…… 를 해가면서 어른들 **주의** 서 몰라든지 무사이 ★…… 이 업다치도 제호자 [illegible] 할수 잇슬때까지 충분히 연습 [illegible]

★……가 직접따라가서 배 **부모** 원주든지 그러치안호면 ★……면 적당한보호자에게 매껴서 충분히 연습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케되기만하면 어린이는 자연그방면에『자신』을 가지게될것이며 만사에 이것이 영향을주어자신잇는이로 커가게될것입니다. 면 장차 사회에나가서도 남에게 지지안코 적극적으로활동해나갈기틀을 여게되는것입니다.

올시깁니다. 그러면후에 교통규측가튼것도 충분히 가르켜 줍니다. 이러케된연후에 자전거를 주어서 밝게내여노하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또 수영도 마찬가지요.

(女性通信)

▲京畿高女同窓會 부내 재동정(齋洞町)에잇는 경기고녀(京畿高女)의 동창회(同窓會)인 경운회(慶雲會)는 오는 이십일일 오전열시에 본교강당에서 잇다는바 여러동창회원은 만히 참석하기를 바란다 한다 회비는 오십전이라한니다.

享樂禁令에대답한다 ③

여성미는전환한다

건강과교양의미덕을! 우울한표정과강짜는금물

『안해여 애정의 여인으로 군림하라, 영원히 안해의 매력을 가추어라』이러케 남성의 입장에서 이래순씨는 말하엿습니다. 안해의 애정도 그의 매력도 다 여자의 건강미 교양미 이겨미를 기준한데서 발휘될줄 압니다.

오늘은 여성의 입장에서『마라손』왕 손기정(孫基禎)씨의 부인이시고 현제 동덕고녀(同德高女)에서 체조교편을 담임하고계신 강복신(姜福信)씨께 말슴드기로 햇습니다.

여성의입장에서 姜福信氏談

○—○

칠칠금령에 뒤이여 오락기관과 요리집의시간이 단축되면은 자연히 남편은 가정으로 일직들어오리라고 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점은 우리조흔일사시지인 [illegible]

안해가 건강치못하다면 어쩌 아플안해를 돌아보지안코 집에 잇고십다는 남편의 기분은 조치못할것입니다.

○—○

아픈안해를 돌아보지안코점점 가정이실허진다면 인정상 생각할수업는일이나 사람인 이상 늘 와석치못한경이 큰 안정의 불만가엇지 안흘가 생각됩니다.

각됩니다.

어느틈에 남편은 남편대로 밧그로나가서 딴 오락기관을 찻고 딴전을 벌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안해가늘 건강해서 알는소리도 안하고 남편이 집에돌아오면 명랑하게 마저준다면 괴곤한남편의몸 과정신은 신선해질것입니다. 일분이라도 빨리 집으로돌아가야겟다고 생각할것입니다.

○—○

▼…다음으로 우리는 여자의 교양을 괴상적이나마 그 입장에서 또는 그 회장에서 흠은 또 흠가정에서 물오른 사이에 교양이잇는니 업는니

하고 따단할만큼 교양은 숨길래야 숨길수업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직까지는 참말화장할 수잇섯던 소양도 낫낫치드러나게되는만큼 안해가 되어슬 때는 더욱 주의를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양잇는조흔부인이 되서야할것입니다. 가령 남편과 단둘이 살때나, 여러가족과 가치살때 남편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변리가면 회가는것이잇는데 미처좋지를 못하고 늦게들어오게되엇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안해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나중에는 지치고 골푸리가 하고퍼진니다. 정도 모르게 심한강짜까지하게됩니다.

▼…의례히 느길 이유가잇서서 느진 남편은 큰 봉변을당하고 맙니다. 어느정도까 지의 강짜는 귀엽게도 생각키우고 남편의 애정을 끄러잡어단일 무기도 됩니다만이 것이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illegible] 무엇이나편정에서 위험치인가정을 차저들때에그 [illegible]

。낭패보기쉬운。 애기네귓병

공연히보채거든주의해보세요

(애기가) 어머니배에서 나와 막으려면 남지 일주일가이나만 일 사정에 의해서 외출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안에 의사에게 귀소제를 해달라고 할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애기를 끼구어서젓을먹이는

(어머니) 가 잇는데 젓이 잘 나는 경우에 는 젓을 기게됩니다 구씨관(歐氏管)으로 고막에 흘러나려서 중이염(中耳炎)을 이르키는 일이 잇스니까 이점으로 보아서도 애기를 끼고자는일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발못이라도 꼭 안고먹이실 것입니다.

(젓이흔) 이 만허서 먹이되 젓 한분은 여프로두 저안케 할것입니다.

(기운) 이 업고하면 먼저내 각기 가잇고 어린애가보채고 파적 병을 앓게 쉽 습니다만 만일 기운이 업는 서도 잘사지도 못하고 잠이들어서도 자주 깨여서 울고열이놉고 몸을 흔들고 귀에다 손을 가지고가는 동작이 보이면중이염의 증후로보아도 별로틀림이 업습니다.

모방보다창조를!

흉내내는것만을강요치말고 자기네세계를만들게하자 (下)

保育大會指導手技講師 李順伊氏談

어른도아이도 땀이흐르는것 도모르고 가방을멘채, 차창잽 기에 기쁘고

…… 재미나는 한루를 **즐겁고** 보냇습니다. 이러 케 저이들이 맨드는수기작품을 가지고실제생활속에 들어가 유쾌하고도 재미잇는 노리가운데서 얻어하고도 점서잇는 산생활을하여 나갈제 옛날에 수기제작에잇서서는 종래에 수기제작에잇서서는 전차를만들엇스면 그만든것뿐으로 목적이다 달성되엇던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전차를단 또는정말이 목적이아니고 만든것을가지고, 실제노리에잇서

서 전차제기를하고 놀는것이 더욱더 즐거운일이 엇지만다 되풀지만은 옴지기지도안코 활부로 막만지지도 못하게하여 꼿게꼿게 선선물으로 위해노핫던것입니다. 더우이 재래에 사용해오던 수기하면, 접는법 비는법 짜는법이라하여 가위질도변변이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세밀하고공도는 연습식수기지도를 분석적으로 지도하엿기때문에 어린이들의 실생활적인 구체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맨도는법 즉기공적연습수기로밧게는 발전을보지못하게 되엇습니다.

어린이의흥미가 맨도는법보다는 그물건에 치중하는

여기서 거너와 재래의접는법 비는법 짜는법 다시말할필요도업는법이 일정하고 고정된 분석적연습수기를 어제도오늘도내일도 번복해고만잇다면 시대로 자라나고 새생을요구하는 우리의 귀한보배어린이들에게 참다운 만족을 주지못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에 잇서서 어린이들에 선생이라기보다도 한성 새로운것을창조해내며 재미나고 생활적이 풍부한 수기를 만이연구하여헌 엽서나 빈상자갑이나 나무납새며 솔입파라 조개껍질등등 자연계의 변화에따라 다달이

[illegible]

총동을 에 적합한재료와 방법을동유도해나 가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여름에는 보육강습회가 잇게되엇스므로 방방곡곡에서 여러동지들이 모혀들게됩니다 그기회에 머리를 나마 엿섯것 여러동지들과 모여서 수기를연구해볼까 합니다. 어떠케하면 우리네 귀여운 어린이들도하여곰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시켜 유쾌한 가운데서 기운차게 재라날수잇게할까 — 이점을 목표로 서로 한데모여서 연구해보려는것이 이번강습회에부치는 나의희망입니다.

행하는 연중행사에서 그들의 흥미를 다지하고 다방면으로 풍부한재료를 제공하므로써어린이들이 맨들고시퍼하는강한 요망을 만족시키고 뭣만아니라 간단업시 새로운것을 발견하고 맨들고 시퍼하는

주어어린이들로 [illegible]

家庭常識 ▲모자는커야조타

사람에게한대머리 군대에오래잇는 가만호것은 군인 들은대게 빼뻔한 모자를 쓰는일 니다 모자가 적으면 자연 머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머리갈이 영양불분이 어울수가업게됩니다 이때에 번대머리가만히 생겨나

[illegible]

지차리우

포도넝쿨

비가 오면
넝쿨의 포도가
자꾸 커집니다。
자꾸
비가 오면
자꾸 커저서
집만큼
커지면
조켓서요。

(아저씨)

▲여름요리와香辛料

여름요리에는 [illegible]생강 초 개사 니는펀이 위생상낫습니다。 자라면 차라리 맨머리로 다 모자에바람구멍을 몃개뚤어두 기에 여유가잇는것이조코, 또 되도록 테두리가 넓직하고쓰 게된답니다 그러기에 모자는

★함귀봉씨환영회

금일청량관에서 이번 경보회(京保會)주최 보육대 회강사로오는 함귀봉씨 이 십삼일에 동경(東京)에서 돌아 오는데 경성에당하는 그날오 후여섯시부터 시내 청량사(淸凉 寺)압 청량관(淸凉館)에서 그환 영회를연다는데 회비는 일원오 십전이라 합니다。

* * *

長篇小說 靑春茂盛 (112)

李泰俊 作 鄭玄雄 畵

罪와罰 (2)

얼마 안가 그 요리집 연통이 뵈인다. 특주는 오뚝 발을 멈추냐. 가슴에손을 대어본다. 면도칼이 아니라 배암처럼 발 다거린다. 가슴의 뛰이엿다. 좌우를 둘러본다. 아모도 보이지 안는다. 저과 저자이에 고추를 엇떤 칼을 가만히 뽑아내다. 종이에 싸이고 다시 운동나무 갈에 틀고…….

『운동나갈?』

특주는 얼른 끌른다. 나무갑을 집어던진다. 짐는것이 아니라 『그냥 쇠자루로 뒤집어 좀 이모만 차서 다시 품는다. 엔 거룰 젓다가 틀이다보니 나무갑이 새하얀것이, 너머 무는 중거물처럼 큰길 우에 또 렷하다. 얼른 다시 와 발길로 차 한편구석으로 떼쥐버린다. 그러는데 누가 손이나 잡을것 처럼 갑재기 오뚝 막아선다.

『요! 이것봐이!』

『어서 어리……요전엔 내가 그만…… 그날 사무리 한날 좀 다가새구 기분이 나빠더라……아시까라주(섭섭이생각 말구.』

특주는 자기도 윤이 주는대로 처음 서너잔은 술을 달게 마시엿고 얼근해진 정신에서부 터는 마시는체하고 자꾸 딴그릇에 따루엇다. 그리고 윤에게는 강권하엿나. 그러나 윤도 특주에게 잔고 권한다.

『인전 정말 난못먹어요』

『그럼 나두 그난덤을가?』

『그럼 상대입두요』

윤이 석잔을 먹으면 특주는 한잔씩 먹엇다. 이것은 속일수 가업시 또박또박 먹게되나, 석잔에 한잔씩이것만 특주는 윤 의주량을 당할수업다. 긴장한속 이라 정신은 말가면서도 어뚝 어뚝현기와 구역이 난다. 『이래

각스리지게 놀랏슬때는 저편으로 서안되겟다」생각이 난다. 에서 나선 주정군이다. 특주는『흥……』

[illegible] 쎄 비척비척 다리난다. 엽호특 에서 나선 주정군이다. 특주는 실현땀을 쭉 씻쳣다. 손바닥까지 하고 윤은 일화술상을 밀어버 리에힘을 주어 돌아섯다. 새파 라, 쇠약한신경처럼 하늘거리는 다. 풀고리움과 치근거림에 놀 〃네오자인〃이 보인다. 뭇슨〃 라 윤의 얼골을 도야지도 느 빠ㅣ〃다. 특주는 그리로 드러 리더니 특주의 목을 끄러간 섯다. 모자를 빼두룩이 엇즉 다. 특주는 아뚝 정신을 일흔 고불등을 엇비슷이 문 남자를 압석과 가티 그떡이 업다. 이 대뜸 허튼수작이나 걸듯이 까며 소름이 도처 떠대민다. 처다들본다. 그런데 틀리보아야 『되요 나 변소에…… 변소에 자리가업다. 특주는 술을 마신 ……』 경보다 더 귀까지 후끈해올리 그제야 윤은 뿌르르 떨며서 나섯다. 점점용기가 업서진다. 노아준다. 『내가 이다지 소심한가? 비러 특주는 하녀를 불러 소금과 먹을!』 냉수를 청햇다. 소금물을 한고 특주는 다투라칠처럼엿다. 무슨 빠나 마시고 변소로 왓다. 소 요리집현판에 다다럿다. 무슨 금물은 이내 저녁먹은것까지회 도 업시 대뜸 그방쪽으로갓다. 올려내엿다. 모다 토하고나니사 땀재라 떤 현판이다. 현판에서 지가 혐전하게 기운은 빠젓스 신발소리가 나자 이내 하녀가 나 정신은 새로워진다. 특주는 나선다. 뒷간벽에 머리를맛대고조아본다.

『벌서부터 기다리시는데 어서…… 그리고 생각해본다.』 『최후의 수단! 동시에 최악 하고 방발비슷한 하녀는 요전 의 수단이 아닌가? 날밤 바로 그하녀다. 라스꼴리니꼬프의 길! 그는 특주는 하녀가 무서워진다. 나중에 후회하지 안엇든가? 『내얼골을 얼마나 분명히 기 어런 수단은 이미 라스꼴리 억하고 잇슬것가!』 니꼬프의 시험제(試驗濟)가아 하녀는 니가?』 『아라 가래이나 아시!(아이 모기 한마리가 앵-소리를 치 어쁘기도한 밥!)』 고 귀미를 홀터니 바로 눈아 하고 밟까지 유정히 보더니 메 가 붓는다. 피를 뚱뚱히빨 특주의 구두를 집어 신장 속 아먹엇다. 그제야 딸국지가 가 에다 윤의 구두와 함께 가즈 런다. 특주는 딸국지를 극기전 런히 넛는다. 『퍼!』 비안은 뭉이 눈이 시게 밝 특주는 목에 칼이 꼬처 과 다. 뭉비처 그린 사지가 쪼라 를 푸ㅣ 푸ㅣ 뿜는 윤친달의갈 드든것 가튼데 뭉호속 시뻘건 쿠러 가름 손이 자기목을 졸 윤친달의 벌거리는 얼골이 가 르는것 처럼을 느낀다. 다시한번 슴이 담담할지경으로 울중하부 이마를벽에 뭇는다.

건장체는근로자의자본인즉 면저체력을증진식힙시다

精力에不足되면 體力에약해 저서 피로를몹시늣기시게되 며 전염병이나결핵균의활동으로全 身이쇠약해저서 나중에는 生命까지 위태롭게되나니 精力이 不足하면 疲勞가 쉬웁고 耐久力이 업서집니다 이러한때에 精力增進에 留意해야 하겟습니다 이의疲勞回復과 精力增進에는 活性요ㅣ도비타민劑「네오스·에ㅣ」를服用하시면 健康確保의目的을 達成하실수있음니다

특허本劑「네오스·에ㅣ」는 잡복결핵균을멸살식히는동시에 그외전염성병독을 적극적으로 저거하여姦뿐아니라 서精力을增强식혀주며 新陳代謝機能을민활이함으로 全身의細胞를 新生賦活식혀서 몸을근본적으로 뜨더곳처주는 新强壯劑이옵니다

비타민A含有量 國際單位 七五〇〇
요ㅣ도含有量 昆布의 一五〇〇倍

主治 肺結核·肋膜炎·精力減退·유전매독 잠복매독·신경쇠약·만성위장병·高血壓·動脈硬化·허약체질·영양부족 氣管支가다루등에특효함니다

네오스·에ㅣ약가
小 瓶……一圓八十五錢
百 粒……四圓三十錢
二 百 粒……八 圓

프도모네오스(小兒用)약가
三〇〇錠……一 圓
六五〇錠……一圓八十錢
二〇〇〇錠……四圓八十錢

全道有名한약방에서販賣합니다

☆全道各地의有名한藥店各位께謹告! 國民健康의增進을위하여積極的進出을 하랴하오니많은援護와聲援을해주시사 貴店躍進繁榮의열쇠로만들어주십시요

통지하시는 三百頁의위생지식 서류와시용약을 무대로진정함

★宣傳報國 愛國標語★
잇쁜노 구기모 도호도베 주우고노 지까라
一本の釘も尊べ 銃後の力!
(못한개라도액기자 즉 총후우리들의 의무다)

네오스·에ㅣ

東京·神田 アルス藥品部 振替東京七一三一九